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31	06. 07	06. 14
대표 기도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윤미경 자매
성경 봉독	최상우 형제	김정규 형제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5월의 축복 인사 :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세요!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 담임목사 동정 - 목회자 영성 수련회 참석(파리, 25~27일)합니다.
5. 브레멘 지역 청년연합 단합대회 : 24일(주일) 오후 5시, 언약교회에서 모입니다.
6.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4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성령강림주일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182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장래황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103 : 1 - 5(구p877) (Psalm 103:1~5)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신 사건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고백했습니다.

1. 성령은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성령은 구속의 은혜를 삶의 변화로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불안은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3. 성령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찬양했습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과 인정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나는 정말 죄 사함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알고만’ 있는가?”
2.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